

INTERNI

& D e c o r

25주년 기념호

SALONE DEL MOBILE.
MILANO 2024

THEME
Architecture and Interior
that Shine in Your Destination

2024 WINDOW 제품 경향

BRAND
Louis Poulsen

우수콘텐츠잡지
2024

JUNE. 2024



아름다운 풍경 속 우연한 만남
Boatyard Hotel

에디터 이석현



호텔 건물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높고 낮은 이치형 지붕이 하나의 균락을 이루고 있는데, 마치 높은 산의 물가에 정박해 있는 배들처럼 보인다.

“적절한 건축은 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성장한다.”_루이스 설리번

쑤저우 우장구 산완 마을에는 목가적인 마을의 고요함, 조용히 펼쳐진 강, 역사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보트야드 호텔(Boatyard Hotel)은 이 나른한 공간 풍경에 자리 잡고 있다. 물결치는 검은 지붕의 건물은 마치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배들이 모여 정박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선율적이고, 때로는 고요하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강변의 수목화를 완성하는 마무리 작업이 된다. 실내 공간에 운율과 시공간적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WJ STUDIO의 목표다. 수상 마을의 목가적인 풍경을 동경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그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Interior Design / WJ STUDIO Wanjing Design
Architectural Design / GOA
Location / 쑤저우, 중국
Area / 1,040㎡
Lighting Design / Eastco Lighting Design
Photographer / Zhu Hai, Zhang Xi



▲ 출입구 쪽으로 약간 아치형의 가대교와 까마귀 모양의 배가 옆에 정박해 있다.



▲ 긴 두루마리처럼 펼쳐진 수평적 공간과 아치형 지붕은 아침 햇살과 석양, 물속으로 뻗은 전망 다리와 함께 강변 풍경을 하나하나 담아낸다.



3차원 공간은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동안 성장하고 진화하며 교차하는 사물을 포용한다. 매 순간 포착하는 이미지는 자연, 들판, 빛, 인공적인 디자인이 공간과 시간의 교차점에서 만나는 순간적인 풍경이다. 죽은 나무 몇 그루가 있는 떠 있는 섬이 마치 시간의 흐름을 환영하듯 펼쳐져 있다. 호텔 건물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높고 낮은 아치형 지붕이 하나의 균락을 이루고 있는데, 마치 높은 산

의 물가에 정박해 있는 배들처럼 보인다. 돌아서서 들어가면 약간 아치형의 가대교와 까마귀 모양의 배가 옆에 정박해 있다. 맑은 날에는 돛의 채광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판에 새겨진다. 비가 오면 캐노피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고, 기암괴석과 강남의 독특한 소리와 색채가 이 지역에서만 드러난다.



원형의 윤곽선은 마치 배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게 비어 있고 방해 요소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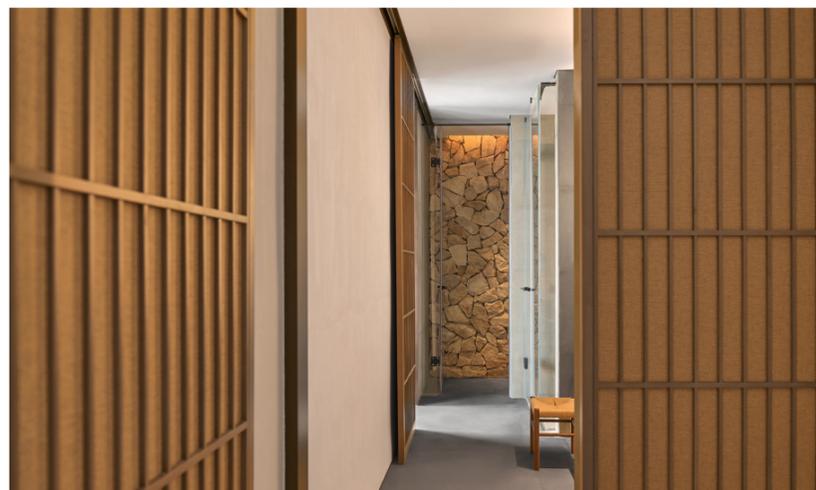
물결 무늬가 새겨진 벤치에 앉아 외딴섬 반대편에 있는 물과 나무, 구름을 바라볼 수 있다.



▲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이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한다.



다리를 지나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이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한다. 조심스럽게 물결 무늬가 새겨진 벤치에 앉아 외딴섬 반대편에 있는 물과 나무, 구름을 바라볼 수 있다. 원형의 윤곽선은 마치 배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게 비어 있고 방해 요소가 없으며 세상의 일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된다. 섬은 창문 맞은편 어두운 곳에 일부러 숨겨져 있어 필요할 때 뒤를 돌아보면 찾을 수 있다. 항상 눈에 거슬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아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선사한다. 사람들이 산책로를 따라 산책할 때 복도는 휴식과 커피 및 독서 공간을 위한 장소다. 긴 두루마리처럼 펼쳐진 수평적 공간과 아치형 지붕은 아침 햇살과 석양, 물속으로 뻗은 전망 다리와 함께 강변 풍경을 하나하나 담아낸다. 공간의 끝에는 코르뷔지에의 '어머니의 집'이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과 호수, 바다, 넘실대는 빛과 그림자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순간, 반짝이는 수면은 기억 속 어머니와 집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한다.



▼ 반쯤 잠긴 상태를 표현한 호텔 내 '정박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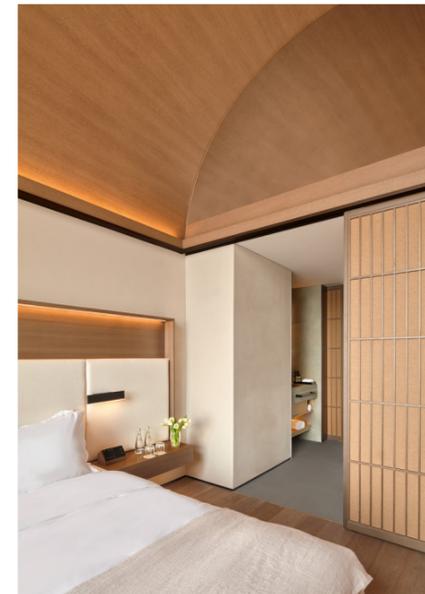
▼ 역동성이 느껴지는 계단실





▲ 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객실에서는 물가의 파노라마 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살면 대지와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들뜬 바람과 함께 평화롭고 평온해진다. 반쯤 잠긴 상태를 표현한 호텔 내 '정박한 배'의 예술적 창조물처럼, 이곳에 도착한 모든 사람이 더 이상 방향하지 않고 평화롭게 머물기를 바란다. 하늘빛을 향해 열려 있는 가라앉은 수영장에서 가벼운 와인 한 잔의 여유, 안뜰에서 침실, 컬렉션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진다. 강변을 마주하고 있는 객실에서는 물가의 파노라마 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긴 케이스에 기대어 나무 그림자와 파도의 빛이 어우러진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전통적인 공간 축을 깨고 일관성이 아니라 도약하는 방식으로 일시 정지, 회전, 개방 및 미묘함을 통해 얇은 노래와 같은 부드럽고 매력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객실 공간은 마치 여행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아서 탑승객들을 흥미진진하게 위로 안내한다. 계획된 틈새로 빛이 들어와 내부로 '시선'을 유도한다. 2층의 객실은 높은 아치형 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평으로 개방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크고 넓은 창문은 야외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 인생은 일상과 욕망을 향해 가는 긴 배와 같고, 사랑은 돌아가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배 위의 하루'는 삶의 본질과 여행의 깊은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다. □

